환경

오 창 국 목사
백운교회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희망과 우려

짧은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들녘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농부들의 땀방울이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 24절기를 따져보니 7월 7일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小暑)입니다. 달력을 살피다가 7월 9일이 유두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유둣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두(流頭)는 음력 6월 15일로 복중에 들어 있으며 유둣날이라 불리는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유두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물은 부정(不淨)을 씻는 의미입니다. 유두음을 계음이라고 하여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고, 탁족놀이는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두에는 맑은 시내나 폭포에 가서 몸을 씻고 햇과일과 유두면을 먹으며 농사일로 지친 몸을 휴식하고 다가올 본격적인 더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농경 시대에는 한참 태양이 뜨겁고 일이 많은 농번기의 보름이었던데다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근대 이전 한국에서 목욕을 하는 날이라 중요했겠지만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달라진 현대의 도시에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반쯤 잊힌 명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바라보면 꼭 필요한 절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이 농촌 경제에 따스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깊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실 농업 정책을 책임질 인물로 농민 출신인 비서관이 임명되고, 오랜 기간 농업 시장 개방에 반대해 온 분이 국정상황실장으로 발탁된 것은 농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정책 수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안법, 농업 재해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업 공약과 맞닿아 있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농업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새 정부에서도 농업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넘어,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농업계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의 농업 정책을 '농망법'이라 폄하했던 송 장관이 과연 새 정부의 농정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실제로 새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 '물가 안정'에 맞춰지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비상경제점검 TF에서 '패싱' 당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 농업 정책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농사용 전기 및 면세유 지원 등 당장 농업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에 뒤늦게 손을 벌리는 행태는 무능함을 넘어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식량 주권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농촌 공동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 정부는 '사람 중심, 더불어 성장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아래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5 청소년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1,2 저자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

며칠 째 시차 적응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 3시경에 일어나 뒤척거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 미국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10여 년이 지나고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 약 2주간의 여행이 있었다. 상당히 긴 시간이라 여러 곳을 다녔으나 지도를 펴 놓고 보니 아주 작은 뉴욕 주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메릴랜드와 워싱턴 근처 정도였다. 미국 여행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땅이 넓다. 차를 타고 달리고 달려도 조금이다. 한국에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4시간이 안되어 도착하였다. 좁다. 작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특히 선거 때에 더 도드라진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사회가 온통 상처투성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을 욕심으로 갈라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실력과 봉사, 섬김이 앞서야 하는데 학연, 지연, 혈연 지역에 기댄다. 본인들은 당선이 되어 좋을지 모르지만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조장으로 나라는 피멍이 들었다. 여전히 그 방법이 통하니 하는 것일 것이다. 비열하고 조잡하다. 놀아나는 국민들이 피해자다. 그렇게 당선된 일부의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니 찍은 사람들은 그 피해를 본다. 그리고 또 반복한다.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다. 지역갈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을 방문해 보아야 한다. 국내의 타 시도 지역을 여행 했을 때 숙박비나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연구되었으면 한다.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게라도 시도해보았으면 한다. 효과가 있다면 한시적으로 점차 늘려가도 좋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전국과 전 세계에서 광주 '양림동순례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지난달 대구에서 오신 분이 한 마디 한다. "올해 70살인데 태어나서 처음 광주에 와봅니다. 호남 사람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너무 친절하고 밝고 좋습니다"라고 하셨다. 방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방문하는 것이 70년이라니 놀랍다. 그 분은 동남아와 외국은 여러 번 다녔다 한다. 나는 경상도를 언제 방문했나 보니 그래도 일년에 서너 차례 다녀오는 것 같다. 더 많이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라도 등산을 하며 방문을 하고 있다.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좋다. 그 절반이라도 우리나라 구석 구석 여행을 다녀보면 어떨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의 통일강사로 경기도 파주와 강화도를 다녀오며 많은 이야기들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참 재미있고 잘 꾸며져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아름답고 다녀볼만하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틈틈이 다녀보리라. 그들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하고 즐거운 웃음을 지으리라. 좋은 에너지가 솟구쳐 날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 창 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 교회와 코이노니아(6)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힘쓴 사귐(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였는데, 이런 '한 마음의 코이노니아'는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서, 넉넉한 성도들이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을 초과하여 갖고 있던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이는 구약의 희년 공동체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희년에 포함되는 안식년의 부채 탕감 본문에 의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취된 것이다.

신 15: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초대교회는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게 된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희년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다(행 1:3,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12; 14:22; 19:8; 20:25; 28:23;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요컨대 초대교회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역시 누가복음처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그 대주제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눅 9:12-17)과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사이에 있는 깊은 연관성이다. 그것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남자들의 수가 오천 명인데,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한 남자들의 수 역시 오천 명이다. 행 4:1-4, "1.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고,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지는 행 4:32-35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했던 것이다.

둘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무리들이 단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서도 믿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셋째,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준 것처럼,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서도 사도들이 넉넉한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다.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눅 9:13)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다.

요컨대, 오병이어 기적과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깊은 관계가 있다.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나타내신 것이다. 전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부활"에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희년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농어촌 · 미자립교회, 군 · 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21 신문을 보냅시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 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4년 7월 창간 25주년을 맞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i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후원(구독)해 주시는 분들

80부 : 라종빈목사(광주벧엘)
20부 : 김승원목사(신창교회) 강봉규이사장(나사렛요양병원) 김사라목사(푸른솔)
김요한목사(월광) 김용민목사(아시아침례) 김영팔목사(입면교회) 남택룡목사(유일)
라종기목사(빛과사랑) 문희성목사(한빛성결) 박혜영목사(동서남북)
백병철목사(봉황임마누엘) 백재옥목사(비손수양관) 신은수목사(열린교회)
윤성록목사(문흥제일) 이천영목사(새날학교) 이근배목사(빛과소금)
임종갑목사(새순교회) 임준태목사(하남) 조규성목사(서광주교회)
최용남목사(한청연) 최정원목사(광주소망) 한상영목사(창대)
10부 : 김임복목사(순복음무등) 변의석목사(엘림침례)
박혜성목사(거성) 이원제목사(사랑의빛) 정순희 최보안목사(백향목)
6부 : 김대훈목사(매월교회) 김경배목사(성암교회)
4부 : 고석원목사(엘드림) 김문선목사(도산) 나보람(여수산돌) 박상현장로(광주벧엘)
박찬환장로(예장통합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오대환목사(동심재)
예장(통합)광주노회
2부 : 공성택목사(성봉) 곽혜자(제일중앙)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노회(예장통합)
김선화 김순양 김양남 김영길집사(신안) 김오자장로(모자이크벧엘)
김진권사(광주벧엘) 김율호목사(홍양) 김종운집사(그린텍 대표)
나성현목사(빛고을소망)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광주연수원 박수한집사(광주벧엘)
박연민집사(광주벧엘) 박용수집사(광주벧엘) 배복남집사(광주벧엘)
서정형전도사(기독문화선교회) 서송자 신행원집사(광산) 오경복권사(동명)
윤석민집사(광주벧엘) 윤정란권사(광주벧엘) 이경아 이석후목사(하늘양식)
이연옥집사(신림교회) 이혜정집사(광주벧엘) 임영혜 문정수장로(광주벧엘)
장신장로(광주벧엘) 정종안원장(참조은한방병원) 조순옥(행복한) 조점님사모(광산)
차은효
1부 : 강영숙(새광야) 강정수집사(광산) 강정숙집사(광산) 고정근집사(광산) 공중길집사(광산) 국성섭목사(광주에덴)
기명현목사(예수생명) 김경호(서남) 김경화집사(광산) 김동수(양림) 김명숙집사(광산) 김명제집사(광산)
김문현집사(광산) 김복자 김상길집사(광산) 김상진목사(한제) 김석호집사(광산) 김선 김선남 김성환집사(광산)
김순자 김연근 김연희권사(벧엘) 김영희권사(푸른초장) 김은성 김은희집사(광산) 김이겸 김정남집사(광산)
김지은(작가회) 김창수(장성제일) 김태봉목사(나사렛예수) 김형미목사(작가회) 김홍섭집사(광산)
김효정목사(진주) 노정옥집사(광산) 노청자집사(광산) 문남례집사(광산) 문연심집사(광산)
문유경 박금진(한빛성결) 박금성집사(광산) 박미선집사 박양선전도사 박영성목사(생명샘)
박영희 박은경 박재수집사(동성) 박천호목사(다니엘기도원) 박춘애 배정자집사(광산) 서숙자집사(광산)
서운근목사(화순도림중앙) 손보경집사(광산) 송인자 신은수목사(열린) 안영균안집(새순) 안혜자집사(광산)
양봉규(광주평안) 양희언목사(예심) 양애라집사(광산) 양은숙 양태규(생명나무) 오광열집사(빛과소금)
오교석(빛과소금) 오주현(꿈이있는) 유명례집사(광산) 윤경희집사(광산) 윤등자 윤영옥목사(예닮)
윤진순집사(광산) 윤홍정집사(광산) 광주YWCA 이건순 이남심(장흥대덕읍) 이빛나 이선자집사(광산)
이시내(행복이넘치는) 이승훈목사(포도원) 이영미집사(광산) 이은경집사(광산) 이을용집사(서광)
이호길목사(정성) 이인환 이재훈목사 이정란(장성제일) 이종석목사(새예루살렘) 이진수집사(광산)
이충렬집사(광산) 이태영집사(광산) 임미숙집사(운암) 임성진집사(광산) 임소영집사(광산)
임정현(동광양제일) 임종연집사(아름다운) 임종훈(사랑마을) 장정심집사(새빛) 전영화목사
정근모장로(효성) 정미경 정병용목사 정수미 정애정집사(광산) 정영애목사(주은혜)
정종운집사(광산) 정준희집사(빛과소금) 정진복(장성제일) 정진산집사(광산) 정찬영집사(광산)
정창기집사(광산) 정춘기집사(광산) 정춘희집사(광산) 정향림목사(첨단빛사랑) 조윤목사(새밭)
조원섭전도사(능주중앙) 최미숙전도사(포도원) 최승곤집사(빛과소금) 최춘영집사(광산)
최혜정집사(지구촌복된) 최현순집사(광주벧엘) 한충효(양무리) 황은아집사(광산) 황정아집사(광산)
상하리교회 예장광주전남협의회 예장합동호남협의회 (사)광주기독교 유적지기념회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 호남 · 제주침례교연합회 통합 · 전국장로회연합회 서부지역협의회

※성명 가나다순